

From Haewon-Sangsaeng to Social Entrepreneurship: Proposing the ERMB Model and Its Educational Implementation

Hyeongmin Kim^{*}
Daej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ntegrates Haewon-Sangsaeng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from Daesoon Thought with social entrepreneurship to develop a morally and spiritually grounded entrepreneurship model. It shifts attention from economic-social performance balance to ethical motivation and relational harmony as the foundations of entrepreneurial action.

[Contents] Through a philosophical review of Haewon-Sangsaeng and case analys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al ventures, the study examines how Haewon (reconciliation), Sangsaeng (mutual beneficence), and Johwa (harmony) are embodied in practice. It proposes the Entrepreneurship of Reconciliation and Mutual Beneficence (ERMB) model, consisting of three sequential dimensions: ethical awareness (Haewon), community-centered value creation (Sangsaeng), and relational leadership (Johwa). Based on this framework, a 15-week curriculum is also developed to foster Haewon-Sangsaeng-oriented entrepreneurship.

[Conclusions] The study expand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by incorporating an Eastern moral and spiritual perspective, addressing Western-centric limitations in existing discourse. It also offers a practical pedagogical framework for ethical and community-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dvancing “entrepreneurship for social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as a guiding paradigm for sustainable social innovation.

[Keywords] Daesoon thought, Haewon-Sangsaeng, Social entrepreneurship, Haewon-Sangsaeng entrepreneurship (ERMB), Entrepreneurial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Hyeongmin Kim (Assistant Professor, Startup Center, Daejin University)
E-mail : bossmin90@daej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대순사상의 해원상생 원리와 사회적 기업가정신: 해원상생 기업가정신(ERMB) 모델의 제안과 교육적 적용

김형민*

대진대학교 창업지원단 조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순사상의 핵심 교리인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원리를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과 통합하여, 도덕적·영성적 기반의 새로운 기업가정신 모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기존 사회적 기업가정신 연구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에 초점을 두어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인간 내면의 도덕적 동기와 관계적 조화를 기업가정신의 근원적 요소로 규정하였다.

[연구 내용] 이를 위해 해원상생의 철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국내외 소셜벤처 사례를 분석하여 ‘해원-상생-조화’의 3요소가 기업 활동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해원상생 기업가정신은 해원적 동기(윤리적 자각), 상생적 행동(공동체 중심의 가치창출), 조화적 리더십(관계적 조정과 협력)의 3단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원상생 기업가정신의 교육적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고, 15주차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담론의 서구적 한계를 보완하고, 동양사상에 기반한 윤리적·관계적 기업가정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더 나아가 창업을 통한 사회적 치유(social reconciliation)와 공동체적 상생을 지향하는 실천적 모델로서, 지속가능한 창업교육과 사회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대순사상, 해원상생, 사회적 기업가정신, 해원상생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I. 서론

21세기 사회는 경제적 성장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양극화, 공동체 해체와 같은 복합적 사회문제는 전통적 시장경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며,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안적 기업가정신으로 주목받아 왔다(Dees, 1998: 1; Zahra et al., 2009: 520). 그러나 서구 중심의 사회적 기업가정신 담론은 여전히 개인의 성취, 제도적 혁신, 측정 가능한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창업가의 윤리적·철학적 동기와 관계적 조화의 기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사회적 가치’라는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그 가치가 어떻게 내면의 도덕적 감응과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형성·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한편 한국 근대 종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순사상(大巡思想)은 인간과 사회, 자연의 조화로운 회복을 지향하는 실천적 사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원한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불균형과 대립을 치유하는 원리로,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윤리적·도덕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려는 변혁적 실천의 성격을 지닌다. 해원상생의 사유에는 사회적 통합, 상호 신뢰, 공동체 회복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며(Ahn, 1998: 30-44), 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성과’뿐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조화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해원상생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추구하는 공동체 중심의 가치창출과 본질적으로 상통할 뿐 아니라, 서구적 사회혁신 담론이 간과해 온 ‘도덕적 동기’와 ‘관계적 조화’의 차원을 보완할 수 있는 동양적 이론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대순사상의 해원상생 원리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철학적·윤리적 기반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원상생 기업가정신(ERMB, Entrepreneurship of Reconciliation and Mutual Beneficence)’ 모델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해원상생의 철학적 구조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가치체계를 비교·분석하고, (2) 이론적·사례적 고찰을 통해 해원적 동기-상생적 행동-조화적 리더십으로 구성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정립하며, (3) 이를 실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15주차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서구적·도구적 한계를 넘어 윤리·영성·공동체성에 기초한 창업 패러다임의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실증적 자료 수집보다는 이론적 탐구와 사례 중심의 질적 분석을 통해 개념적 정립을 시도한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대순사상의 교리적 구조(해원·상생·조화)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핵심 이론(사회적 가치창출, 혁신, 공동체 중심성)을 검토하고, 이어 국내외 소셜벤처 및 사회적 기업 사례를 분석하여 해원상생 원리가 기업 활동 속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ERMB 모델을 체계화하고, 창업교육 현장에 적용 가

능한 교육 설계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사회적 기업가정신 연구에 대순사상의 윤리적·영성적 자원을 접목함으로써 서구 중심 담론의 설명 한계를 보완하고, 둘째, 해원 - 상생 - 조화의 원리를 창업가의 동기 - 실천 - 리더십으로 구조화하여 기업가정신의 인간 이해를 심화시키며, 셋째, 이론적 논의를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체화하여 연구와 교육을 연결하는 실천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창업을 통한 사회적 치유(social reconciliation)와 공동체적 공존의 관점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창업교육과 사회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전통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시장 경쟁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 복지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는 기업가정신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 Dees(1998: 1-4)는 사회적 기업가를 사회적 사명을 중심에 두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결합하여 사회적 변화를 창출하는 실천가로 정의하였으며, 이후 연구들은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사회적 가치, 혁신, 지속가능성의 결합으로 설명해 왔다(Zahra et al., 2009: 519-523; Mair, & Martí, 2006: 37-38).

Zahra et al.(2009)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혁신적 활동과 지속 가능한 방식의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실천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s)를 사회적 브리콜라주(social bricolage), 사회적 건설(social construction), 사회적 혁신(social engineering)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단순한 자선활동이나 도덕적 의도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 사회문제를 다루는 제도적·조직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여전히 성과 측정, 조직 성장, 제도적 확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며, 창업가 개인의 윤리적 동기나 관계적 가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윤리적·정신적 기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Miller et al.(2012)은 사회적 기업가의 행동이 연민(compassion)과 같은 도덕적 감정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Smith et al.(2013)은 사회적 기업이 경제적 논리와 사회적 사명 사이의 긴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판단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Munir et al.(2023)과 Rashid and Ratten(2022)은 종교적·영적 가치가 사회적 창업가의 동기 형성과 조직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윤리적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단순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감응과 관계적 책임에 기반한 실천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윤리적 동기를 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리더십 자질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사상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상적 자원으로서 본 연구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적 윤리를 강조하는 대순사상(大巡思想)에 주목한다. 대순사상은 한국 근대 종교사 속에서 형성된 실천적 사유체계로, 인간·사회·자연의 조화로운 회복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그 핵심 교리인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억울함과 원한을 해소하는 해원과, 이를 토대로 상호 이익과 공존을 실현하는 상생의 원리를 결합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해원은 개인과 집단, 과거와 현재에 축적된 도덕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윤리적 자각의 과정이며, 상생은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실천적 행위이다(Ahn, 1998: 30-44; Lee, 1998: 12-18).

대순사상에서 해원과 상생은 궁극적으로 조화(調和)로 귀결된다. 조화는 갈등의 단순한 중재나 타협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 및 신(神) 사이의 관계가 윤리적으로 재정렬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화의 세계관은 경쟁과 대립을 강조해 온 서구적 이분법 사고를 넘어, 관계적 윤리와 공동체적 공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적 가치 창출 이론과도 상통한다.

종합하면,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기존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혁신의 중요성을 충분히 조명해 왔으나, 그 근원적 동기와 관계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는 이론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대순사상의 해원상생 원리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윤리적·철학적 토대로 재해석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을 ‘성과 창출’이 아닌 ‘관계 회복과 조화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II. 사례분석

본 장에서는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원리가 사회적 기업가정신 실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는 (1) 사회문제 해결을 핵심 미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벤처일 것, (2) 공동체 중심의 가치창출 또는 상생형 비즈니스 모델을 실천하고 있을 것, (3) 윤리적 동기와 관계적 협력의 가치가 기업 활동에서 확인될 것이라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또한 본 사례분석은 특정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적 표본이라기보다, 해원-상생-조화의 원리가 사회적 기업가정신 실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탐색적 사례 분석(exploratory case illustration)의 성

격을 지닌다.

1. 국내 사례

1) 아름다운가게(Beautiful Store Foundation)

아름다운가게는 기증 물품의 재사용과 재판매를 통해 자원순환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며, 발생 수익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환원하는 대표적 사회적 기업이다. 시민 참여 기반의 순환 구조는 소비와 기부, 지역사회 연대가 결합된 사회적 가치 생태계를 형성하며, 공동체 기반의 상생을 실천한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상생적 가치창출의 전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Baek et al., 2015: 33-45).

2) 트리플래닛(Tree Planet)

트리플래닛은 시민 참여형 나무심기 캠페인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산시키며, 탄소중립과 생태복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국내 소셜벤처이다. 개인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상생적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활동은 환경문제를 공동체적 실천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조화적 가치창출과 연결된다(Kim et al., 2015: 8-19).

3) 동구밭(Donggubat)

동구밭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가치를 기업 운영의 중심에 둔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배제라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노동을 통한 존엄 회복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해원적 동기와 긴밀히 연결된다. 또한 ‘모든 일자리에 존엄이 있다’는 가치 지향은 공동체적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가정신의 핵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Park, 2021: 112-128).

2 해외 사례

1) 그라민뱅크(Grameen Bank)

그라민뱅크는 담보와 신용이 없는 빈곤층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마이크로크레딧의 대표적 모델이다. 금융배제라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해원적 동기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 기반의 신뢰 금융을 통해 상호 의존적 협력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상생의 원리를 제도화하였다(Kabir Hassan, & Renteria-Guerrero, 1997: 3-12; Yunus, 1998: 6-11).

2) 파타고니아(Patagonia)

파타고니아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경영을 기업 사명으로 설정하고,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산업 구조를 실천해 온 친환경 기업이다. 재활용 소재 사용, 윤리적 생산, 공정무역 인증 등의 활동은 기업 운영을 사회적·생태적 책임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자연 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균형을 추구하는 조화적 세계관과 상응하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Rattalino, 2018: 241-248).

3) 탐스슈즈(TOMS Shoes)

탐스슈즈는 개발도상국 아동들이 신발 부족으로 인해 교육 및 생활환경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탐스슈즈는 “One for One” 모델을 통해 소비와 기부를 연결하며, 기업 활동이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소비 행위가 단순한 시장 교환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윤리적 순환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상생적 소비윤리의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Mattson, 2018: 2-6). 또한 이러한 모델은 소비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부 방식의 지속가능성과 구조적 변화의 한계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Jun, 2016: 77-83).

3. 사례분석 종합: ERMB 요소별 구현 양상

본 연구는 선정된 국내외 사례를 해원 - 상생 - 조화의 ERMB 3요소 관점에서 재분류하여, 각

<표 1> ERMB(해원-상생-조화) 관점에서 본 국내외 사회적 기업 사례의 비교 분석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 cases from the ERMB perspective

사례	핵심 사회문제/미션	ERMB 연결 (해원-상생-조화)	핵심 포인트
아름다운가게	자원순환 · 나눔 · 취약계층 지원	상생 중심	순환 · 환원 구조를 통한 공동체 가치창출
트리플래닛	탄소중립 · 생태복원	상생+조화	참여형 생태협력 구조(인간 - 자연 공존)
동구발	장애인 배제 · 일자리 · 존엄 회복	해원+상생	‘배제의 원(冤)’을 노동 · 공동체로 해소
그라민뱅크	구조적 빈곤 · 금융배제	해원+상생	신뢰 기반 공동체 금융(제도 재구성)
파타고니아	환경위기 · 책임생산	조화 중심	산업 시스템을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
탐스슈즈	글로벌 취약계층 지원	상생 중심	소비 - 기부 연계(윤리적 순환)

사례가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어떤 방식으로 가치창출을 실천하는지를 비교·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4. 소결

사례분석 결과, 해원상생의 원리는 단순한 도덕적 구호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실천 논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특히 해원은 사회적 불의와 배제에 대한 문제 의식 및 치유 동기로, 상생은 공동체 중심의 가치창출 방식으로, 조화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관계 조정의 리더십 원리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ERMB 모델이 추상적 철학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 활동의 동기·행동·관계 구조를 설명하는 해석 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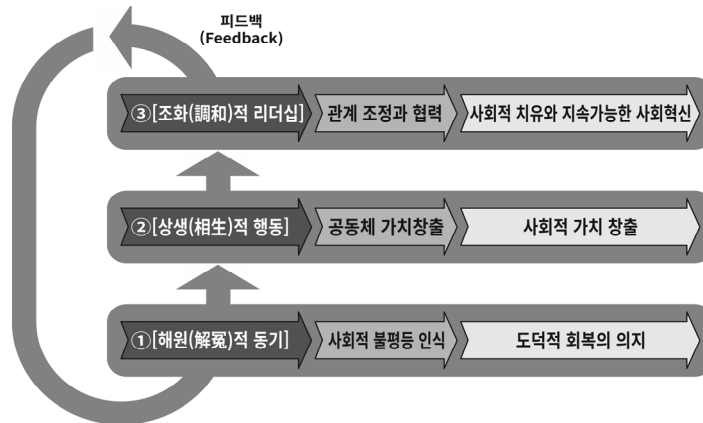
IV. 해원상생 기업가정신(ERMB) 모델 제안

본 장에서는 대순사상의 핵심 교리인 해원상생(解冤相生)을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윤리적·철학적 기반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원상생 기업가정신(ERMB, Entrepreneurship of Reconciliation and Mutual Beneficence)’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 사회적 기업가정신 논의가 사회적 가치와 혁신,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ERMB는 창업 행위의 근원적 동기를 사회적 치유(social reconciliation)와 관계적 조화(relational harmony)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Bae, 2022: 5). 이는 사회문제 해결이 단지 새로운 서비스나 제도의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처와 갈등의 구조를 윤리적으로 성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Teasdale et al., 2021: 3-7; Bae, 2022: 2-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원-상생-조화를 ‘동기-행동-리더십’의 연속 과정으로 구조화하여 ERMB 모델을 제시한다. 즉, 사회적 불의에 대한 윤리적 자각에서 출발한 창업 동기가 공동체 중심의 가치창출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나아가 이해관계자 간 관계 조정과 협력의 리더십을 통해 사회적 치유와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ERMB 모델의 단계 구성과 작동 논리는 [그림 1]에 요약하였다.

ERMB 모델은 기업가정신을 ‘성과 중심의 혁신 활동’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으로서의 창업’으로 재정의한다. 특히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실천이 취약성과 고통을 완화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치유적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ERMB는 사회적 기업가의 내면적 정당성(inner moral legitimacy)과 관계적 책임을 동시에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Suiter, & Wilfong, 2020: 18-26; Smith et al., 2016: 2-6).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단지 ‘사회적 목적

을 가진 사업’이라는 기능적 정의를 넘어, 사회적 불의와 배제에 대한 윤리적 응답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림 1] 해원상생 기업가정신(ERMB)의 개념적 구조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Haewon-Sangsaeng entrepreneurship (ERMB)

1. 해원(解冤)적 동기: 윤리적 자각과 도덕적 감응

ERMB의 첫 번째 단계는 해원(解冤)적 동기이며, 이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출발하는 윤리적 기반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 해원은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 도덕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이는 단순한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사회적 불의에 대한 도덕적 응답으로서의 실천을 포함한다. 이러한 해원의 의미를 기업가정신의 맥락에 적용하면, 창업가는 사회문제와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도덕적 감응(moral sensibility)을 형성하고, 이를 창업의 동기로 전환하게 된다(Smith et al., 2016: 4-7).

기존 기업가정신 이론이 주로 기회인식과 혁신을 강조해 왔다면, ERMB는 창업의 출발점을 경제적 기회 추구가 아닌 ‘사회적 상처에 대한 공감’과 ‘회복의 의지’로 규정한다. 이러한 해원적 동기는 사회적 기업가의 행동이 외부의 보상이나 성과지표에 의해 정당화되기보다,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면적 당위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확장·성장 과정에서 상업적 논리와 충돌할 때, 해원적 동기는 사회적 사명을 유지하게 하는 윤리적 기준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Zahra et al., 2009: 520-523).

해원적 동기의 핵심은 ‘문제 해결’ 이전에 ‘문제의 윤리적 인식’에 있다. 예컨대 그라민뱅크의 출발점은 빈곤층의 금융배제라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으며, 동구발의 창업 또한 발달장애인의 배제라는 사회적 원(冤)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과 윤리적 책임감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며,

창업가의 내면적 정당성이 곧 사회적 실천의 지속성을 떠받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Zahra et al., 2009: 521-522).

2. 상생(相生)적 행동: 공동체 중심의 가치창출

ERMB의 두 번째 단계는 상생(相生)적 행동이며, 해원적 동기가 실제 기업 활동의 형태로 구현되는 실천 차원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 상생은 대립과 경쟁을 넘어 상호이익과 공존을 실현하는 윤리적 원리이며, 이는 기업가정신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공동체 중심의 가치창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며, 자원의 결합과 혁신의 방향을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맞추는 실천으로 설명된다(Dees, 1998: 1-4; Mair, & Martí, 2006: 37-38).

상생적 행동은 전통적 경영의 경쟁논리를 넘어 관계적 가치창출(relational value creation)을 지향한다. 즉, 기업가는 고객·협력업체·지역사회·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통해 ‘나와 타자의 동반 성장(co-growth)’을 추구하며, 이는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나 협력적 생태계 구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Porter, & Kramer, 2019: 1-3; Kim et al., 2006: 7-12). 이러한 관점에서 상생은 단지 결과로서의 사회적 임팩트가 아니라, 가치가 생성되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실천 원리로 이해된다.

사례분석에서 확인했듯이 아름다운가게는 자원 재분배와 순환을 통해 공동체 기반의 상생을 실천하고, 트리플래닛은 시민 참여와 기업 협력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확장한다. 파타고니아는 책임 있는 생산과 윤리적 소비를 결합함으로써 산업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며, 탐스슈즈는 소비 행위가 연대와 기부의 윤리적 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상생적 행동이 타자 중심적 가치창출(altruistic value creation)을 통해 사회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Karsantık, & Çayak, 2025: 4-8).

3. 조화(調和)적 리더십: 관계 조정과 협력의 거버넌스

ERMB의 세 번째 단계는 조화(調和)적 리더십이며, 상생적 행동이 지속가능한 조직문화와 사회적 협력 구조로 안정화되는 과정에 해당한다. 대순사상에서 조화는 해원과 상생이 결실로 드러나는 사회적 균형의 상태이며, 갈등의 단순한 봉합이 아니라 관계의 재정렬과 공동체적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기업가정신의 관점에서 조화는 이해관계자 간 긴장을 조정하고, 신뢰 기반의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리더십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McElhatton, & Jackson, 2012: 2-6).

조화적 리더십은 명령이나 통제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라, 신뢰(trust)와 공동체적 협력

(collaborative harmony)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서구의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나 영적 리더십(spiritual leadership)과 일정한 유사성이 있지만, 대순사상의 맥락에서는 인간과 신(神)의 조화라는 세계관과 연결되며, 개인의 도덕적 내면이 관계적 질서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Lee, 1997: 14-21). 따라서 조화적 리더십은 사회적 기업이 외부 자원과 이해관계자의 요구 속에서도 사회적 사명을 유지하고,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거버넌스를 지속하도록 돕는 핵심 조건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사명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긴장, 내부 구성원 간 가치 충돌, 외부 파트너십에서의 이해관계 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이때 조화적 리더십은 갈등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윤리적으로 성찰하고 협력 가능한 질서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리더십은 공동체적 신뢰를 축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관계적 기반을 강화한다(Smith et al., 2013: 5-9).

4. ERMB 모델의 학문적 의미: 관계적 가치이론과 윤리적 기업가정신의 확장

ERMB 모델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해원 - 상생 - 조화의 단계적 구조로 설명함으로써, 윤리적 동기와 관계적 실천을 하나의 연속 과정으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확장 가능성을 지닌다. 첫째, ERMB는 기업가정신을 도덕적 공간(moral space)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논의와 연결되며, 창업의 정당성이 시장 기회가 아니라 윤리적 요구와 사회적 책임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Anderson, & Smith, 2007: 479-485).

둘째, ERMB는 기업활동의 성과를 개별 기업의 효용이 아니라 관계적 조화의 정도로 평가하려는 관점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가치의 분배와 정의, 관계적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도 접점을 가진다(Nachum, 2021: 2-6).

셋째, 조화적 리더십은 사회적 기업의 조직문화와 거버넌스에 영적·윤리적 요인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윤리적 리더십 연구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기업가(moral entrepreneur)’의 역할과도 연결된다(Kaptein, 2019: 113-118; Rashid, & Ratten, 2022: 2-6; Munir et al., 2023: 4-9).

요컨대 ERMB 모델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핵심을 ‘사회적 혁신의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치유와 관계 회복의 실천’으로 재정립하며, 서구 중심의 도구적 담론이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윤리·영성·공동체성의 차원을 이론적으로 가시화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연구가 성과와 확산의 논리뿐 아니라, 인간 이해와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안적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V. 해원상생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 커리큘럼 설계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해원상생 기업가정신(ERMB) 모델을 창업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적 설계 원리와 15주차 커리큘럼을 제안한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설계 역량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도덕적 실천을 학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Neck, & Greene, 2011: 56-60). 특히 사회적 기업가정신 교육은 지식 전수 중심의 교수학습을 넘어, 윤리적 각성(ethical awakening)과 공동체 감수성(community sensitivity)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Passarelli et al., 2025: 2-5).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ERMB 교육은 해원상생의 윤리적·영성적 가치에 기반하여 ‘사회적 치유와 상생을 지향하는 창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ERMB 교육모델은 대순사상의 핵심 덕목인 성(誠) - 경(敬) - 신(信)을 교육 설계의 가치 원리로 삼는다. 성은 문제 인식의 진정성과 도덕적 감응을, 경은 타자와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공감, 신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협력을 의미한다(Kim, 2001: 33-41). 이 세 덕목은 ERMB 모델의 단계 구조인 해원(윤리적 자각) - 상생(공동체 가치창출) - 조화(관계적 리더십)와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도덕적 동기 - 관계적 실천 - 신뢰 기반 거버넌스’로 이어지는 기업가정신의 학습 경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 - 경 - 신을 교육의 핵심 역량 요소로 설정하고, 이를 15주차 창업교육 과정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한다.

1. 교육 설계의 기본 방향: 해원 - 상생 - 조화의 학습 단계화

ERMB 교육은 학습자가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고통과 배제의 구조를 윤리적으로 성찰하며, 이를 관계적 실천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설계된다. 이를 위해 본 교육은 세 단계의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해원 단계는 사회적 불의와 취약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윤리적 자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둘째, 상생 단계는 공동체 중심의 가치창출을 실천할 수 있는 협력적 행동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셋째, 조화 단계는 이해관계자 간 긴장을 조정하고 신뢰 기반 협력을 구축하는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단계적 구조는 학습자의 내적 동기 형성에서부터 실천적 창업 설계, 그리고 공동체적 거버넌스 형성까지 이어지는 ‘도덕적 기업가정신’의 교육 경로를 명료하게 제시한다.

해원상생 기업가정신 교육은 또한 ‘성 - 경 - 신’ 덕목을 학습자의 태도·가치·역량으로 번역하여 구체화한다. 성(誠)은 사회문제 인식의 진정성과 내면적 감응을 의미하며, 학습자가 사회문제를 외부의 과제로만 다루지 않고 자기 삶의 윤리적 질문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Lee,

2017: 214-220). 경(敬)은 타자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적 협력의 태도로 확장되며, 이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학습자가 체득하도록 돕는다(Jeong et al., 2025: 9-14). 신(信)은 지속가능한 관계 구축과 신뢰 기반 협력 능력으로 구체화되며, 사회적 기업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속에서 사명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작동한다(Lee, 2001: 45-52). 이처럼 ERMB 교육은 ‘가치 - 역량 - 실천’의 통합적 설계를 통해, 창업교육을 사회적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교육으로 확장한다.

2. 15주차 커리큘럼 구성 원리

본 연구가 제안하는 15주차 커리큘럼은 크게 (1) 해원적 동기 형성, (2) 상생적 가치창출 실천, (3) 조화적 리더십 및 거버넌스 학습의 세 모듈로 구성된다. 첫 번째 모듈은 사회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창업 동기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두 번째 모듈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체 관점에서 설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는 학습을 포함한다. 세 번째 모듈은 사회적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본 커리큘럼은 일반적인 창업교육에서 강조되는 ‘아이디어 발굴 - 시장검증 - 사업화’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윤리적 문제 인식과 관계적 가치창출의 논리를 교육의 중심축으로 설정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단순히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와 도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이라는 관점에 기반한다(Dees, 1998: 1-4). 또한 교육 과정 전반에서 팀 기반 학습과 현장 기반 과제를 결합하여, 학습자가 관계적 협력과 공동체적 책임을 경험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한다(Neck, & Greene, 2011: 60-64).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기업가정신 교육이 ‘지식 중심 교육’에서 ‘윤리·공동체 중심의 경험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의와도 부합한다(Passarelli et al., 2025: 4-6).

3. <해원상생 기업가정신> 15주차 교육 커리큘럼(안)

다음 <표 2>는 ERMB 교육모델의 단계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한 15주차 커리큘럼(안)을 제시한다. 본 커리큘럼은 해원 - 상생 - 조화의 단계적 학습을 통해 사회문제 인식에서 공동체 가치창출 모델 설계와 협력 기반 리더십 형성까지 이어지도록 구성하였다.

4. 교육 운영 방안: 종교적 가치와 창업교육의 접합

ERMB 교육은 종교적 가치체계를 단순한 윤리교육의 소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동기와 실천을 이해하는 교육적 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즉, 해원상생의 원리는 개인적 수행을 넘어 사회적 불의와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적 조화를 회복하는 실천윤리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지향하는 공동체 복지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방향성과도 상통한다. 따라서 ERMB 교육은 종교적 교리를 ‘교리 학습’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학습자가 사회문제 해결의 윤리적 책임과 관계적 실천을 익히도록 확장한다.

<표 2> 해원상생 기업가정신(ERMB) 교육 커리큘럼 (15주차 예시)
 <Table 2> A 15-week curriculum for Haewon-Sangsaeng entrepreneurship (ERMB)

주차	학습 단계(ERMB)	주제	핵심 활동 · 산출물
1주	오리엔테이션	과목 소개 및 ERMB 개요	팀 구성, 개인 성찰노트(문제의식/가치)
2주	① 해원(解冤)	사회문제와 구조적 불평등 이해	사회문제 맵핑(원인 - 결과 - 피해자)
3주	① 해원(解冤)	윤리적 감응과 창업 동기 형성	‘사회적 원(冤)’ 정의서(1p)
4주	① 해원(解冤)	공감 기반 문제정의(Needs finding)	이해관계자 페르소나 · 공감지도
5주	① 해원(解冤)	해원적 동기 → 창업미션 전환	미션 · 비전 · 핵심가치 초안
6주	② 상생(相生)	사회적 가치창출 개념 이해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도출
7주	② 상생(相生)	상생형 비즈니스 모델 설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초안)
8주	② 상생(相生)	이해관계자 협력 구조 설계	파트너십 · 협력 네트워크 맵
9주	② 상생(相生)	사회적 임팩트 지표 설계	임팩트 로직모델(투입 - 성과)
10주	② 상생(相生)	사례 분석과 모델 고도화	국내외 사례 비교 요약표
11주	③ 조화(調和)	관계 조정과 협력(거버넌스)	갈등요인 분석 및 조정전략
12주	③ 조화(調和)	신뢰 기반 조직문화 설계	운영원칙 · 윤리규정 초안
13주	③ 조화(調和)	지속가능한 성장과 책임경영	리스크/지속가능성 점검표
14주	통합 적용	ERMB 기반 사업계획서 완성	최종 사업계획서(요약본)
15주	성찰 · 발표	최종 발표 및 학습 성찰	발표(PPT) + 성찰보고서

또한 ERMB 교육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서구 중심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영성 기반 동기’와 ‘관계적 조화’의 요소를 교육의 핵심으로 설정한다. 최근 사회적 기업가정신 연구에서도 윤리적 동기와 영적 가치가 창업가의 내적 동기와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 성과와 혁신을 넘어 인간의 도덕성과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Miller et al., 2012: 7-10; Rashid, & Ratten, 2022: 3-7). 따라서 ERMB 교육은 창업을 ‘성공 전략’이 아니라 ‘사회적 치유를 위한 실천’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5. 소결: ERMB 교육의 기대효과

ERMB 교육모델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기술 중심의 창업역량 개발로 한정하지 않고, 윤리적 자각과 공동체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실천교육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원 단계는 사회문제에 대한 윤리적 감응과 책임감을 강화함으로써 창업의 내면적 정당성을 형성하게 하고, 상생 단계는 관계적 협력과 공동체 중심의 가치창출 역량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설계하도록 돕는다. 조화 단계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과 신뢰 기반 협력을 통해 사회적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치유와 공존을 지향하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대순사상의 핵심 교리인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원리를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과 통합하여, 도덕적·영성적 기반의 새로운 기업가정신 모델을 탐색하였다. 기존 사회적 기업가정신 논의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균형, 혁신성과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어온 반면, 본 연구는 창업의 근원적 동기를 ‘사회적 치유(social reconciliation)’와 ‘관계적 조화(relational harmony)’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단순한 사회혁신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상처와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해원상생 기업가정신(ERMB, Entrepreneurship of Reconciliation and Mutual Beneficence)은 해원(解冤) - 상생(相生) - 조화(調和)의 3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첫째, 해원은 사회적 불의와 배제에 대한 윤리적 자각을 바탕으로 창업 동기를 형성하는 단계이며, 사회적 기업가의 내면적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 둘째, 상생은 공동체 중심의 가치창출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단계로, 관계적 협력과 상호이익 기반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셋째, 조화는 이해관계자 간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 기반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리더십 차원으로, 사회적 치유와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적 거버넌스의 기반이 된다. 이처럼 ERMB는 ‘동기 - 행동 - 리더십’의 연속 과정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설명함으로써, 기존 담론이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윤리·관계·공동체성의 차원을 이론적으로 가시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ERMB 모델의 교육적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고, 대순사상의 핵심 덕목인 성(誠) - 경(敬) - 신(信)을 교육 설계의 가치 원리로 적용하여 15주차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제안된 교육모델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기술 중심의 창업역량 개발로 한정하지 않고,

윤리적 각성과 공동체 감수성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Bae, 2022: 2-3). 즉, 학습자는 사회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식(성), 타자와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공감(경),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협력 능력(신)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며, 이를 창업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창업교육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넘어 사회적 치유와 공존을 지향하는 인간학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순사상의 해원상생 원리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철학적 기반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정신 연구의 서구 중심적 편향을 보완하고 동양사상 기반의 윤리적 기업가정신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해원 - 상생 - 조화를 기업가의 심리적 동기, 행동적 실천, 관계적 리더십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인간 이해를 심화하였다. 셋째, 이론적 논의를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체화하여, 종교적 가치와 사회혁신 교육의 접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연구모델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주로 문헌 고찰과 사례 중심의 질적 분석을 통해 개념적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ERMB 모델의 구성 요소와 단계적 관계는 이론적 정합성에 기반하여 제안되었으나, 실제 사회적 기업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검증은 수행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ERMB 개념의 설명을 위한 탐색적 사례 분석의 성격을 지니며 대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조직 형태·국가별 맥락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교육 커리큘럼은 설계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효과를 측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ERMB 모델의 구성 타당성과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 기반 구조모형 분석, 교육 실험 설계, 학습자 성찰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적 확장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원상생 기업가정신(ERMB) 기반 15주 창업교육 프로그램 역시 탐색적 교육 설계의 성격을 지니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 실험이나 학습성과 분석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실천이 종교적 가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조직문화와 거버넌스의 형태로 제도화되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나아가 해원상생의 윤리적 원리가 사회적 경제, ESG, 임팩트 투자 등 현대 사회혁신 영역과 어떤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연구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원상생 원리를 기반으로 한 ERMB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사회적 치유와 공동체적 공존’을 지향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담론의 철학적 토대를 확장하는 동시에, 종교적 가치가 사회혁신 교육과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RMB 모델이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혁신과 창업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하나의 유의미한 이론적·교육적 기준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J. W. (1998). A study of the theory of Haewon-Sangsaeng from an ethic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4(4), 25-80.
- Anderson, A. R., & Smith, R. (2007). The moral space in entrepreneurship: an exploration of ethical imperatives and the moral legitimacy of being enterprising.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9(6), 479-497.
- Bae, K. H. (2022). The value of peace and the modern significance of Haewon Sangsaeng.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40(42), 1-38.
- Baek, H. N., Hong, J. E., Lee, J., Choi, J. H., Su, S. B., Kim, T. D., Lee, I. S., & Kim, J. W. (2015). A study on the diffusion of social Innovation: Focused on Beautifulstore. *Journal of Social Value and Enterprise*, 8(2), 96-136.
- Dees, J. G. (1998). *The mean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KS City, CA: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 Jeong, D. Y., Lee, S. H., & Cho, Y. S. (2025). A development of Korean entrepreneurship value system based on Confucianism and Nammyeong's principl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Studies*, 6(1), 213-239.
- Jun, S. M. (2016). Development of ethical consumption motives based on the theory of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7(2), 151-179.
- Kabir Hassan, M., & Renteria Guerrero, L. (1997). The experience of the Grameen Bank of Bangladesh in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24(12), 1488-1523.
- Kaptein, M. (2019). The moral entrepreneur: A new component of ethical leadership.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6(4), 1135-1150.
- Karsantık, İ., & Çayak, S. (2025). Exploring the effect of altruism on social entrepreneurship characteristics: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intellig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2(1), 1-13.
- Kim, J. T. (2001). An understanding of the tenets of Daesoon thought: Focusing on Seong (sincerity), Gyeong (reverence), and Sin (faith).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12, 138-418.
- Kim, K. C., Kim, S. W., Park, G. S., Park, S. T., Park, J. Y., Song, C. S., Rhee, C. O., Im, I., Kang, H. Y., & Han, J. W. (2006). A theoretical framework for collaborative partnerships between large and small to medium size companies: Building a sound and

- sustainable business eco-system. *Journal of Small Business Studies*, 28(3), 381-410.
- Kim, M. J., Min, B. A., Shin, H. S., Hwang, S. W., Lee, I. S., & Kim, J. W. (2015). A case study of the mobile giving platforms based on construal level theory: Focused on Bigwalk and Tree Planet. *Information Systems Review*, 17(3), 135-157.
- Lee, H. R. (1997).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the thought of Sin-in Johwa (harmonious harmony between the divine and humans).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3(3), 29-49.
- Lee, H. R. (1998).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the thought of Haewon-Sangsaeng.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4(2), 1-24.
- Lee, J. H. (2001). A study on the meaning of Sin (faith) as one of the three essential elements in Daesoon thought.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11(11), 355-400.
- Lee, Y. G. (2017). The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growth of Seong thought in Korean education history.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39(4), 91-116.
- Mair, J., & Martí, I. (2006). Soci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 source of explanation, prediction, and delight. *Journal of World Business*, 41(1), 36-44.
- Mair, J., & Noboa, E. (2006). *Social entrepreneurship: How intentions to create a social venture are formed*. In J. Mair, J. Robinson, & K. Hockerts (Eds.), *Social Entrepreneurship* (pp. 121-135).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 Mattson, C. E. (2018). A better feeling for making the world better? TOMS's tropes and the buy-one-give-one mode. *Rhetoric Society Quarterly*, 48(5), 440-458.
- McElhatton, E., & Jackson, B. (2012). Paradox in harmony: Formulating a Chinese model of leadership. *Leadership*, 8(4), 441-461.
- Miller, T. L., Grimes, M. G., McMullen, J. S., & Vogus, T. J. (2012). Venturing for others with heart and head: How compassion encourages social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7(4), 616-640.
- Munir, T., Saron, T. B., Hutabarat, J. K. K., & Sutrisno, S. (2023). Faith-based soci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braham is an entrepreneur model in society through faith and business. *RERUM: Journal of Biblical Practice*, 2(2), 109-123.
- Nachum, L. (2021). Value distribution and markets for social justice in global value chains: Interdependence relationships and government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4(4), 541-563.
- Neck, H. M., & Greene, P. G. (2011). Entrepreneurship education: known worlds and new frontie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55-70.

- Park, R. Y. (2021). A case study on the business practices of a social enterprise for employ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cial venture “Donggubat”. *Korea Business Review*, 25(3), 101-128.
- Passarelli, M., Bongiorno, G., & Corrado, N. (2025). Soc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The experience of ENACTUS Ital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23(3), 101239.
- Porter, M., & Kramer, M. R. (2019). *Creating shared value*. In G. G. Lenssen & N. C. Smith (Eds.), *Managing sustainable business: An executive education case and textbook* (pp. 323-346). Dordrecht: Springer.
- Rashid, S., & Ratten, V. (2022). Spirituality and entrepreneurship: integration of spiritual beliefs in an entrepreneurial journey.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16(6), 876-899.
- Rattalino, F. (2018). Circular advantage anyone? Sustainability driven innovation and circularity at Patagonia, Inc.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60(5), 747-755.
- Smith, B. R., Kistruck, G. M., & Cannatelli, B. (2016). The impact of moral intensity and desire for control on scaling decisions in social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3(4), 677-689.
- Smith, W. K., Gonin, M., & Besharov, M. L. (2013). Managing social-business tension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for social enterprise. *Business Ethics Quarterly*, 23(3), 407-442.
- Suiter, S. V., & Wilfong, C. D. (2020). *Healing work*. *Social Enterprise Journal*, 16(1), 82-99.
- Teasdale, S., Roy, M. J., Ziegler, R., Mauksch, S., Dey, P., & Raufflet, E. B. (2021). Everyone a changemaker? Exploring the moral underpinnings of social innovation discourse through real utopias.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12(3), 417-437.
- Yunus, M. (1998). Poverty alleviation: Is economics any help? Lessons from the Grameen Bank experi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2(1), 47-65.
- Zahra, S. A., Gedajlovic, E., Neubaum, D. O., & Shulman, J. M. (2009). A typology of social entrepreneurs: Motives, search processes and ethical challeng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5), 519-532.